

# 문화관광붐, 길림 발전의 새 활력 보여줘

길림성 빙설경제는 년초 이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고 특히 음력설 황금 연휴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길림성은 음력설 연휴 기간 국내 관광객을 연인원 2,051만 7,100 명을 접대하면서 국내 관광수입 200억 6,100 만원을 실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5.48%, 57.03% 성장, 2019년 동기 대비 22%, 22.88% 성장한 수준이다.

씨트립(携程)의 통계에 따르면 길림성의 관광 주문은 동기 대비 118% 성장하고 입장권 주문량은 동기 대비 3배 성장했다.

화베이(滑呗) APP의 통계에 따르면 스키 코스 길이로 순위를 정할 경우 전국 앞 10위중 길림성 스키장이 3개를 차지하는데 그 점유율은 40.66%, 그중 북대호스키리조트는 전국 1위에 등극했다.

### 스키 휴가 인기 높아

스키 휴가는 길림성의 우세 관광 항목 중 하나다. 2월 길림성의 여러 스키장에는 인파가 넘쳐나고 명절 분위기가 넘쳤다. 스키, 풍속, 온천욕, 맛있는 음식 맛보기... 많은 관광객들이 스키장에서 설을 보내며 빙설의 정취를 느끼고 빙설의 묘미를 체험했다.

길림성의 북대호스키리조트에서는 음력설 기간 북대호 제2회 신춘유원회를 개최했다. 징, 북소리와 함께 사

자춤 공연자들이 눈밭에서 뿔고고 뛰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다. 안휘성에서 온 스키애호가 리선생은 "스키도 타고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랑만적인 풍선의 밤, 새해 첫 스키를 타면서 해돋이 맞이... 길림시의 만과송화호리조트는 다양한 '음력설 즐기는 방식'을 기획하여 관광객들의 빙설 휴가 체험을 풍부히 하였다. 만과송화호리조트 마케팅부 총감독 황종에는 "명절 기간 리조트에서는 매일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소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길림성의 스키리조트는 음력설 기간 저마다 관광객 절정기를 맞이했다. 북대호스키리조트, 만과송화호리조트 일평균 관광객 접대량은 각각 만명을 초과, 지난해 동기 대비 70% 성장했다. 만봉통화스키리조트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1배 성장했다. 장백산만달국제리조트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22.5% 성장하고 장백산화미승지리조트가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94.6% 성장했다.

공급을 풍부히 하고 명절 활동이 다채로웠다. 음력설 기간, 길림성문화관광청은 각종 주제 로선 332갈래를 출시하고 200여가지의 문화관광 활동, 계절 음력설 주제 활동 866 개를 기획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장백천하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했다.

### 문화관광 소비 열기 뜨거워

씨트립의 통계에 따르면 음력설 기간 장춘의 관광 주문은 동기 대비 125% 성장하고 입장권 주문량은 동기 대비 6배 넘게 성장했다. 장춘빙설신전지, 장춘영화세계성 등 풍경구는 열점 목적지로 부상했다. 장춘동식물공원에서 접대한 관광객수와 영업수입은 각각 동기 대비 7배, 6배 성장했다.

풍경구의 열기는 음식, 숙박, 촬영 등 소비도 이끌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빙설환락곡, 중국조선족민속원, 연변대학 왕흥벽 등 곳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특색 음식과 왕흥 음식점은 관광객들을 흡인했다. 메이판 데이터에 따르면 양력설후, 연변의 문화관광 주문량은 동기 대비 137.4% 성장했다.

날이 저물면 겨울판(冬季版) 이도 백하진 '운정시장'(云顶市集)에는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다. 300미터 이어지는 야시장은 명절 분위기가 농후하다. 대상 경리 조훙은 "시장과 진의 관광지 런들은 관광 성수기의 열기를 지속시켰다."고 소개한다.

대중 평가 데이터에 따르면 양력설 이래 '장백산'을 키워드로 하는 메모와 평문수가 지난해보다 215.5% 성장했다. 길림성문화관광청의 소개에 따르면 빙설관광의 견인하에 장백산지역의 대형 호텔은 음력설 기간에 기본상

만실 상태였고 장백산만달국제리조트 안의 중점 호텔 평균 입주율은 86%에 달했다.

### 교통이 다양하고 어디 가나 북적

음력설 관광객의 견인하에 길림성의 운수업도 바빠 움직였다. 남방 관광객들이 동북의 추위에 만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춘공항은 짐을 찾는 구역에 탈의실을 설치했는데 남방에서 온 관광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 탈의실에서 겨울옷을 갈아입고 스키 장비를 들고 곧바로 스키장으로 향했다.

은련상무 데이터에 따르면 음력설 기간, 전 성 여러 공항은 연인수로 3,500대의 항공기 리차륙을 보장했고 려객 통과량은 연인수로 59만명에 달해 각각 동기 대비 30%, 50% 이상 성장했다. 전 성 고속도로 출입구 차량 통과량은 801만 7,900대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48.94% 성장했다.

이번 스키 시즌에 길림성문화관광청은 소비쿠폰, 직통차, 향로, 대상 투자, 대출 리자 보조금 등 면에서 11개의 혜택 정책을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총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빙설 소비쿠폰, 1,000만원에 달하는 빙설교통보조금, 최고 800만원에 달하는 대상 투자 포상금 등이 포함된다.

/ 신화사

## '연변의 맛' 고속철에 떴다



'특전사식 관광'의 흥기로부터 '미식관광'이 유행되기까지 연변은 먹방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최근 '고속철에서의 먹방' 현상이 수두룩하게 나타나면서 '연변의 맛'이 또 한번 알려지고 있다.

'고속철에서의 먹방'이란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 현지에서 하루 'N끼'를 먹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 음식을 포장하여 돌아가는 고속철에서 계속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것이야말로 음식을 맛나게 먹는 최고 경지입니다. 옆집 아이들이 먹고 싶어 울고 있습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네요. 포장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강성 관광객 아생은 치킨, 김밥, 봉어빵, 떡볶이, 디저트, 커피... 등을 포장해 고속철에 올랐다.

아생은 열차에서 고속철을 타고 장춘 룡가역으로 가는 두시간 반 되

는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며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음식들을 맛보고 즐겼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스크린을 사이두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연변에 가서 먹어볼래!" 등 댓글을 남겼다.

"연변에서 탄 고속철은 가장 행복했던 귀가길이었습니다!" 흑룡강 관광객 예후와 그의 친구들은 연변에서 2박 3일 동안 매일 'N끼'의 리듬으로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먹지 못했다며 집으로 돌아오는 당일 비빔밥, 김밥, 잡채볶음, 닭날개튀김, 순대, 커피 등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고속철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나도 연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표준에 따라 먹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먹방 관광객들의 '고속철 메뉴'를 관찰해볼 때 치킨, 커피, 김밥은 필수이며 비빔밥, 순대, 간장게장, 떡볶이, 설빙 등도 인기가 많았다.

/ 열차시당위 선전부

## '서유기' 콘텐츠 인기 폭발... 장춘동식물공원 핫한 관광지로



관광지마다 단순한 경치가 아닌 각종 콘텐츠 활용으로 관광객을 끌고있는 가운데 장춘동식물공원공원에서 내놓은 '서유기'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음력설, 정월대보름이 한참 지난 3월 4일에도 장춘동식물공원은 관광객들로 북적었다.

천전에서 온 관광객 류씨는 "손오공에게 음식을 직접 건네주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손오공뿐만 아니라 서유기에 등장했던 기타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고 공연도 볼 수 있어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도 설레임을 감추지

못한다. 장춘동식물공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유기'를 콘텐츠로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고 음력설 연휴 기간엔 개원전부터 대문 앞에 긴 대기줄이 이어질 만큼 관광 성수기의 열기가 지속되기도 했다.

올해 빙설 시즌에는 '서유기' 콘텐츠를 공익을 직접 건네주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 글 최화기자 / 사진 류향희기자



## 장백산홍송왕스키장 3월까지 운영 연장

3월에 들어선 안도현 장백산홍송왕스키장은 여전히 눈 덮인 풍경을 자랑하며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올 스키 시즌 이 스키장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1,000만원의 수입을 달성했다. 특히 음력설 연휴 기간에는 만 1,9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67.61% 증가했으며 매출 또한 140만원을 돌파하며 130% 이상 성장했다.

2일, 안도현 장백산홍송왕스키장 마케팅 총경리 석광량은 "올해 장백산 관광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키장은 3월 중순 또는 말까지 운영 연장을 예상하고 있다. 최고의 스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인력을 늘리고 400세트의 새로운 스키 장비를 추가로 도입했다. 만약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속된다면 인공눈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계획도 있다."라고 전했다.

북경에서 홍송왕스키장을 찾은 왕씨는 "따뜻해지는 날씨에 많은 스키장이 문을 닫는 반면 홍송왕스키장은 특별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여전히 최상의 스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홍송왕스키장을 3월까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 눈 상태도 정말 좋았고 코스도 다양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스키장을 누비는 스키 마니아 장씨는 "이곳의 스키장은 단순한 스키 이상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 눈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발발을 감싸주고 탄력 있는 해면처럼 스키어를 위로 받쳐준다. 거기에 눈 덮인 지형을 따라 자유롭게 미끄러지면서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짜릿하다."라고 평가했다.

홍송왕스키장은 장백산 기술에 위치해있는데 수천년 력사의 고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에 둘러싸여 있다. 5만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펼쳐진 홍송왕스키장의 스키 코스는 총 길이 1,700미터, 평균 경사도 10도, 최고 해발이 1,100미터에 달한다. 스키장은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연일

## 봄이 왔어요 ~ 운남성 라평현에 유채꽃 활짝



최근 운남성 곡정시 라평현에는 약 100만무에 달하는 유채꽃이 앞다투어 피어났다. 산들바람에 유채꽃 바다가 노란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산과 마을, 숲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봄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라평현에서는 유채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통합해 농촌 료식업과 민박의 활발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신화사